

광양시 '웰니스 관광' 활성화 적극 나섰다

여수·순천·보성과 함께 남도형 관광콘텐츠 개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6월께 관광상품 운약

웰니스(wellness·건강) 관광 전 세계적으로 기대수명 증가와 만성질환 지속 등으로 삶의 질을 높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려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추구하는 활동인 웰니스 관광 분야가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양 구봉산 전망대

등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부하다. 광양시 관계자는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살려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운영할 것"이라며 "많이 알려진 곳보다는 숨어있는 '웰니스 관광지'를 찾아 남도바닷길 권역이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가 '웰니스(wellness·건강) 관광'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10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여수, 순천, 보성과 함께 남도형 관광 콘텐츠 개발에 착수했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광양시의회 국제교류관에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남도바닷길 권역(광양·여수·순천·보성)의 '웰니스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제안공모 평가위원회를 열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제안공모는 총 6개 학술·연구·컨설팅업체가 여행사 간 공동 도급을 통해 참여해 4시간에 걸친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으로 심도 있는 평가가 이뤄졌다.

광양시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이달 중 계약을 마치고, 웰니스 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과 함께 관광상품을 만들기로 했다.

용역은 이달 말부터 시작하며 3개월 뒤인 6월쯤 관광 상품 운약이 드러날 전망이다.

4개 시군이 5000만원씩 부담해 2억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추진하며 광양시는 사업자 선정과 사업 관리·감독 등을 맡았다.

남도형 관광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기로 한 여수, 순천, 광양, 보성은 녹차와 매실 등 비롯한 친환경 농산물을 신선한 해산물

광양시, 13일~3월 12일 1만3739개 사업체 대상 전국사업체 조사 실시

광양시는 13일부터 3월12일까지 1만3739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전국사업체조사는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와 고용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는 국가 통계 조사다.

조사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광양 지역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체 여부 등 14개 항목에 대해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조사대상 사업체의 응답부담을 줄이고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응답자 요청 시 우편조사, 배포조사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양준석 광양시 총무과장은 "정확한 통계 작성은 조사대상처의 정확한 응답에서 시작된다"며 "조사내용은 통계법으로 철저히 보호되고 통계 목적 외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영·태인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회의 열고 의견 수렴

하반기 실시계획 등 본격 착수

광양시는 최근 광영동사무소와 태인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각각 '광영동과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주민협의체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사업의 활성화계획 수립(안)과 진행현황,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연구와 의견 조율을 거쳐 실행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다.

광영동과 태인동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해 8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각각 250억원과 135억원이 투입됐다.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꿈꾸는 워라벨시티 광영'을 주제로 광영 시민센터와 광영시장 복합공간화, 광영근린공원 입체공원화 사업 및 허브광장, 노후주택지구 업그레이드 등 12개 단위사업, 29개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태인동 도시 재생 뉴딜사업은 '태인동 과거·현재·미래를 엮다'를 주제로 노후주택개량사업과 공공입주주택건설사업, 공·폐가 리모델링, 도로 개설 및 골목길 정비, 역사문화체험장 및 마을 기업 육성, 골목상권 활성화 등 6개 단위사업, 16



광양시는 최근 광영동사무소와 태인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각각 '광영동과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광양시 제공>

개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광영동과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 12월 14일 국무총리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로부터 선도 지역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올 3월 국토교통부의 '실행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시는 활성화계획이 금년 상반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로부터 승인되면 하반기부터

실시계획 등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광영동과 태인동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인프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1500억 투입될 광양시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 민자 유치 가능 여부 놓고 또 논란

800억원 민자 확보될지 우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도 관건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인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민간투자 유치 가능 여부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다. 총사업비 150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800억원을 민간투자로 확보할 계획이어서 민자 유치가 사업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광양시의 민자 유치 계획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거쳐야 하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통과도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3월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광양시로부터 1000억원 투자 제안을 받았지만 "회사 차원에서 검토만 바 없다"며 거절했다.

이와 관련 광양시가 "광양제철소가 지역의 대표적 기업으로서 참여를 제안했다"고 밝혔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투자 제안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익 구조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성호 광양시의회 의원은 "민간 자원은 먼저 사업 타당성을 조사해보고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야 투자에 참여

하는 만큼 수익을 어떻게 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전남 동부권에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만큼 잘 준비해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어린이 테마파크가 들어설 부지는 산악 지역으로 산을 깎아 평지로 만들지 않고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만큼 대규모 토목 사업은 아니다"며 "남부권에 테마파크가 없는 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민간투자 부분을 협의를 진행 중이고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테마파크 기본계획을 만들 계획"이라며 "광양의 특색을 반영한 테마파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광양시는 광양시 황길동 중앙근린공원 일대 60만8000여㎡에 2025년까지 어린이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독일의 생대 놀이터인 케틀러 호프(Kettler Hof)처럼 어린이 테마파크를 어린이와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상하고 있다.

2017년 5월 자체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친 뒤 지난해 2월부터 토지 감정평가와 보상에 들어가 시비 100억원을 들여 38%인 22만㎡를 매입했다. 올해도 시예산 200억원을 책정해 나머지 부지도 사들일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 농업 선도할 '강소농 교육생' 모집

시, 전업농 이하 중소규모 가족농 대상 22일까지

광양시는 농업을 선도할 '2019년 강소농(強小農) 교육생'을 22일까지 모집한다.

강소농이란 미래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업농 이하의 중소규모 가족농을 말하며, 교육생으로 선정되면 경영개선 실천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경영진단·컨설팅, 자율학습 모임체 활동 지원을 받게 된다.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강소농 교육은 월 2-3회(목요일) 농업인교육관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총 18회(100시간 이상) 이루어진다.

선정된 교육생은 ▲농업인이 알아야 할 세부 상식 ▲경영기록장 작성법 ▲온오프라인 공간마케팅전략 ▲농산업 아이디어 찾기&현장 벤치마킹 ▲농산물

소포장 실습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브랜드 개발 ▲강소농대전 참가 및 현장견학 등을 배우게 된다.

모집대상은 영농규모가 전업농 이하인 중소규모 가족농으로, 광양시에 거주하는 만 64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 해당되며 4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는 농업소득 10% 향상을 위한 의지가 강하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 농업인을 모집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광양시 기술보급과 식량작물팀(061-797-3559)을 방문하거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접수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윈윈~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